

천만의 분노, 일심단결의 힘으로 만고역적

지금 이 땅은 마치 전사상 태를 방불케 하고있다. 군대와 인민모두가 최대의 격동상태에 들어가고 최고사령관의 명령만 있으면 단숨에 달려나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불바다, 재가루로 만들 분노와 열적의 기세로 가는 곳마다 부글부글 끓고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흰눈처럼 선량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진 인민들이다. 자기보다 남을 더 아끼고 위해주고 사랑을 미더오, 가장도 용납하지 않는 지구상의 가장 화목한 대가정이다.

세인이 찬탄과 부러움을 표시하는 이런 아름다운 인간들이 지금 사나운 맹수가 되어 모두가 이를 갈고 당장 전선으로 나가겠다고, 총을 달려며 복수의 일념을 화산마냥 터치고있다.

누가 고요하던 이 강산에 분노의 불화산을 터뜨렸는가. 무엇이 온 나라를 그토록 격분케 하고 공부박에 모르던 순진한 학생들마저 펜

최고졸업

대신 총을 잡겠다고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단 한가지 민족의 최고졸업이 중상모독당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존엄에 사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들도 다 자기의 존엄이 있고 그것을 귀중히 여긴다.

공화국은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주성과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이다. 돈과 부귀보다도 인간의 존엄을 더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려는데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공화국의 군대이고 인민이다.

그 존엄중에서도 가장 신성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최고졸업이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에 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태양이시며 미래이다.

만인이 칭송하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이 계시어 나라와 민족들도 다 자기의 존엄이 있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주적인 존엄과 영예, 행복을 누리어왔다.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신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인덕의 품에서 사랑만을 받으며 행복을 꽃피워온 공화국의 인민들이고 령도자와 사상과 뜻, 정과 의리로 굳게 단합하여 부강이든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공화국의 군대이고 인민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이 계시어 조국의 빛나는 어제와 오늘이 있고 창창한 래일도 있다는 것은 지난 반세기이상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억척으로 새겨진 불변의 신념이고 그 무엇으로도 지울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에 하늘이 있다면 그 하늘은 김정일장군님이시고 태양이 있다면 그 태양은 우리의 김정은최고령도자이시라는 것이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진정이요 굳센 신념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최고졸업을 중상모독한것은 결국 우리모두의 생명과 존엄높은 제도, 행복한 생활을 강그리 부정하고 마구 칼질한것이며 천추만대에 씻을수 없는 치명적인 만고죄악이 아닐수 없다.

죄악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 두고두고 용서할수 없는 최대의 죄악이 바로 민족의 최고졸업을 중상모독하는 행위이다.

이번에 남조선의 리명박역

적패당이 공화국의 최고졸업을 짓밟고 우뚝한것은 이 땅에 사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겨누고 총포탄을 퍼부은 야만행위이고 모두의 가슴속에 소용돌이 새겨진 절세위인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지워보려는 특대형도발행위이며 북과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그러니 어찌 모두가 분노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하늘의 태양을 떨쳐버리고 무모하게 날친 대결광신자들은 민족과 역사의 단호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지금 최고졸업을 지키기 위한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기자신과 가정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정의와 애국, 민족과 역사의 흐름에 파편치하게 도전해나선 역적패당을 징벌하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의 포문을 열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역적패당이 공화국의 최고졸업을 중상모독하는 야만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4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동서고금을 처음이고 21세기 문명시대에 세계를 경악시키는 특대형 반인륜적당동이며 천인공노할 만행의 극치인 이번 사건을 놓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물론 남조선사회계도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대국상에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지른 리명박패당이 또다시 치명적인 만행을 감행한것은 그들이야말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라는것을 뚜렷히 보여준다.

대변인은 이번 특대도발 사건은 결코 괴뢰군아래부대 개별적조종놈들의 소행이 아니라 리명박역도와 국악무도한 전쟁개입 괴뢰군 방부 장관 김관진, 괴뢰합동참모본부의 장 정승조와 같은 군부우두머리들이 조악해낸 고의적인 도발책동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난해 괴뢰군과 예비군 훈련장에 우리의 최고졸업을 상징하는 표적들을 걸어놓고 총포탄을 마구 쏘아대면서 지랄발광을 한 주모자도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이 병영과 정문, 담벽 등에 우리 존엄을 모독하는 구호들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기상과 취침, 훈련과 밥먹을 때까지 반공구호를 웨치게 한 주범도 다름아닌 괴뢰역적패당이다.

리명박패당이 앞에서는 《대화》요, 《유연성》이요 뭐요 하며 너스레를 퍼우고있지만 뒤에서 우리 수뇌부를 해치기 위해 피를 물고 독기를 부리고있다는것이 이번엔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났다.

리명박패당과 같은 무지막지한 대결광신자들은 상종은 고사하고 아예 이 땅에 살아남을수 없게 할것이다.

우리의 최고졸업에 대한 모독은 우리 군대와 우리 인민의 생명을 어찌보려는 날벼락맛을 광판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추에 용납 못할 괴뢰패당

의 극악무도한 도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불타는 적개심, 드높은 열적의 기세로 단장약되어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무섭게 폭발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백두의 천출명장의 힘찬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원수적멸의 준비태세에 진입하였다.

성전은 이미 선포되었다. 극악한 인간독조이며 온갖 악의 화근이며 만고역적무리인 리명박패당은 민족의 첫째가는 심판대상이 되며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서 엄숙히 천명했처럼 우리의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누구든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역적패당은 백두산호랑이 노호할 때 얼마나 무서운 불벼락을 치는가 하는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준경

공화국의 최고졸업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자들은 이 땅, 이 하늘아래 살아 숨쉴 곳이 없게 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한주일이 지나았으나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공화국 각계층 민심의 분노는 날이 화산처럼 폭발하고있다.

리명박이 저지른 역적패당에 대한 참을수 없는 증오로 새 차가 쏘여버지고있다.

《대통령》갑두를 뒤집어 쓴 때로부터 지난 4년간 히스테리적인 반공화국대결광기에 매달려 세상 못된것만 플라플라 해오기도 모자라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인 최고졸업까지 함부로 중상모독하였으니 이런 특등죄

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역적의 무리들이 감히 태양을 어찌보려고?》 어리도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은 저 하늘의 태양이다. 태양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하며 그 빛발은 찬란하다.

《절세위인들께서는 평범한 인간인 나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온 나라가 다 아는

박역적패당의 무자비한 복수성전에 앞을 다투어 걸기 해나서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하고 불과 하루동안에만도 전국의 174만 7 493명의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에 입대, 복대할것을 단원해나섰다.

평시에는 그렇듯 부드럽고 연약해보이던 녀성들도 결코

를 잡고 땅바닥에 태를 치고 식칼로 놈들의 머다시를 파서 한강에 띄워버려야 속이 풀릴것 같다.》고 하며 이를 부두부두 같았다.

한성을 김책제철원합기업소에서 용해공으로 일해오 강철옥(79살)로인도 치솟는 격분을 참을수 없어 거리로 달려나와 《명박이새끼를 나한테 보내달라. 지난 전쟁시 기 1211고지에서 싸울 때 이 손으로 우리를 어찌보려고 덤벼드는 놈들을 수백백씩이나 지옥에 보냈다. 한줌도 못되는 쥐새끼들의 대갈동들이 주먹으로 단번에 죽살탕 내고말겠다.》며 젊은이들 못지않게 역센 팔뚝을 썩씩 걸어들었다.

민심은 천심이며 하늘이 내리는 벌을 피할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역적의 무리들을 단호히 징벌해버릴 최후결전의 시각을 기다리며 《명박이를 쳐 죽이라.》 《군부조선풐광리들을 때려잡자.》고 웨치는 군민의 웨침은 이 시각에도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성난 민심, 폭발하는 분노

《한갓 쥐새끼무리에 불과한 역적패당이 어찌대고 감히 하늘에 샅대질한단 말인가. 천하의 몸풀 불한당들과 더이상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솟고 더이상 참을수가 없다. 대국상을 당한 아픈 가슴에 칼질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최고졸업까지 함부로 건드린 명박이놈을 뼈도 추리지 못하게 죽탕쳐버리겠다.》

《역도의 무리들을 끌어내다 떨떨 삶는 쇠물가마에 처넣자.》...

그 어디를 가보아도, 남프로소 누구를 만나보아도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저

악을 저지른 역적패당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끝에 닿고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격분에 찬 목소리는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있다. 《개보라 못한 인간쓰레기.》 《미친 개무리.》 《뒤간의 구대기 같은 놈.》 《사지를 찢어 죽이자.》 《목사발.》 《진짜물맛》과 같은 분노와 정의의 목소리들은 천만군민의 생명인 최고졸업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복수의 열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김일성훈장수훈자로,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정년 절세위인들은 우리 운명의 태양이시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 군대는 쌓이고 쌓인 분노와 복수심을 터쳐 역적패당의 소굴을 불바다로 만들겠습니다.》

조국 땅 그 어디서나 분노에 찬 이런 웨침들이 울려 퍼지고있다.

각지의 열혈청춘들이 리명

래의가 아니었다.

시부모님들과 남편, 자식들을 잘 돌보고 위해주는 마음착한 녀성으로 알려진 평양시 보통강구역 경흥동에 사는 리영금(42살)녀성은 역적패당의 대역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는 시퍼런 불길 이 황황 이는 눈길로 남쪽 하늘가를 쏘아보며 《미처도 더럽게도 미친 역적무리들의 피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수가 없다. 이제라도 당장 서울, 인천으로 달려가 명박이새끼들의 머리끄덩이



반통일역도 리명박에게 죽음을 주자!



만민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인민군군인들

시 우리는 총대로 결산하리라

김태룡

가슴을 치는 격노의 부르짖음
총병을 들부시고 리저오라
심장에 뚫어버리는 분노의 피줄기여 뵈어오라
결단코 죽음을 줄 보복의 성전이다

아직도 가슴엔 다 쏟지 못한 애도의 아픈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에 전쟁연습의 불을 질러낸 악당
또다시 우리의 최고졸업을 악랄히 중상모독해나섰으니

칼탕을 쳐 역도를 천조박만조박낸들
이 분노의 한조박인들 덜어낼수 있으랴

역도의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뺏아낸들
불명이같은 총장의 한글 인들 식힐수 있으랴

참을성의 한계점이 틀어진 주먹에 으깨여지는 소리
특대형도발자 리명박역적패당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짓몽개버리리라
그 한계점을 넘어선 천만군민이
징벌의 서슬푸른 총탄을 재웠다

보라!
우리의 최고졸업을 서벌리 건드리는
만고역적을 가차없이 쓸어버리리라
결전의 참호가 된 이 땅이다

온 나라가 병사가 되어 일떠섰다

피발이 선 이 증오의 조문을 벗어날 곳이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없거니
마지막 한놈의 피물은 숨줄까지
중오의 손탁으로 끊어놓지 않고서는
보복의 성전을 끝낼지 않으리

오, 가증스런 역적의 무리들
그대로 그대로 살려두고서는
결코 물러설수 없는 이 대결
우리는 복수의 선언을 말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총대로 피의 결산을 하리라

기자: 리명박역도의 극악무도한 강대행위에 지금 온 겨레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듣고싶다.

리우갑: 정말 소스라칠 정도로 치가 떨린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상복을 아직 벗지 못한 겨레의 피눈물 맺힌 가슴에 칼부림을 해대고도 모자라 민족의 어버이의 숭고한 영상과 거룩한 존엄을 두고 천하의 망나니짓을 했으니 상제들이 우리가 어찌 참을수 있겠는가.

당장이라도 서울로 쳐들어 가 짐승만도 못한 리명박과 김관진, 정승조 그놈새끼들을 때려잡고싶다.

나는 인생의 절반이상을 남조선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악명을 떨친 《유신》독재자의 발골멸에서도 살아보았고 동족을 피바다에 잠근 대학살의 주범, 군부파쇼살인광의 통치하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기도 하였으며 사대로 물젖은 정치대총부의 추악한 몰골도 목격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독재자들도 공화국의 최고졸업만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리명박역적패당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파쇼독재자들을 합친것보다 더한 불한당들이며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천하의 대결미치광이들이다.

기자: 이번에 리명박역적패당이 감행한 특대형도발행위는 조상전래의 미풍량속,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모르는 자들의 특대형범죄행위가 아니겠는가.

리우갑: 그렇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레의법절이 밝기로 세

역적무리들을 그냥 놔둘수 없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리우갑과 나는 대담—

상에 소문났다. 특히 불상사를 당한 집에 조문을 가고 평시에는 비록 관계가 좋지 못했어도 위로의 말을 전하는것은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무지막지한 강도라 해도 상가에는 뛰어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하늘이 낸 위인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온 겨레, 전세계가 슬퍼하고 심심한 애도의 감정을 표시할 때 리명박패당은 어떤 망탕짓을 했는가.

중대보도가 나가기 바쁘게 괴뢰들은 마치 저들이 바라던 《금번사태》가 도래한것처럼, 우리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좋은 기회라고 온 것처럼 분주함을 퍼우면서 특해공군부대들에 경계비상과 전투비상을 하달하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전쟁선상의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30여개의 우익보수반동단체들을 전연에 내몰아 여러차례에 걸쳐 감히 우리의 최고졸업을 헐뜯고 소요를 선동하는 내용의 삐라까지 살포하는 광기를 부리었다.

역적패당은 무덤하게도 《천안》호침물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최종책임》을 우리의 최고졸업과 연계시켰는가 하면 절세위인을 잃고 흘리는 인민들의 순결한 피눈물을 모독하면서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버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지어 군부의 강대무리들

을 내몰아 우리의 최고졸업과 체제를 헐뜯는 표적을 만드는데 비록 관계가 좋지 못해도 위로의 말을 전하는것은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무지막지한 강도라 해도 상가에는 뛰어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하늘이 낸 위인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온 겨레, 전세계가 슬퍼하고 심심한 애도의 감정을 표시할 때 리명박패당은 어떤 망탕짓을 했는가.

중대보도가 나가기 바쁘게 괴뢰들은 마치 저들이 바라던 《금번사태》가 도래한것처럼, 우리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좋은 기회라고 온 것처럼 분주함을 퍼우면서 특해공군부대들에 경계비상과 전투비상을 하달하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전쟁선상의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30여개의 우익보수반동단체들을 전연에 내몰아 여러차례에 걸쳐 감히 우리의 최고졸업을 헐뜯고 소요를 선동하는 내용의 삐라까지 살포하는 광기를 부리었다.

역적패당은 무덤하게도 《천안》호침물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최종책임》을 우리의 최고졸업과 연계시켰는가 하면 절세위인을 잃고 흘리는 인민들의 순결한 피눈물을 모독하면서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버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지어 군부의 강대무리들

을 내몰아 우리의 최고졸업과 체제를 헐뜯는 표적을 만드는데 비록 관계가 좋지 못해도 위로의 말을 전하는것은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무지막지한 강도라 해도 상가에는 뛰어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하늘이 낸 위인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온 겨레, 전세계가 슬퍼하고 심심한 애도의 감정을 표시할 때 리명박패당은 어떤 망탕짓을 했는가.

중대보도가 나가기 바쁘게 괴뢰들은 마치 저들이 바라던 《금번사태》가 도래한것처럼, 우리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좋은 기회라고 온 것처럼 분주함을 퍼우면서 특해공군부대들에 경계비상과 전투비상을 하달하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전쟁선상의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30여개의 우익보수반동단체들을 전연에 내몰아 여러차례에 걸쳐 감히 우리의 최고졸업을 헐뜯고 소요를 선동하는 내용의 삐라까지 살포하는 광기를 부리었다.

역적패당은 무덤하게도 《천안》호침물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최종책임》을 우리의 최고졸업과 연계시켰는가 하면 절세위인을 잃고 흘리는 인민들의 순결한 피눈물을 모독하면서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흔들어버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지어 군부의 강대무리들

끌어들이면서 서해상에서의 포실탄사격훈련을 벌린 데 이어 북침을 노린 핵시험 전진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그것이 실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아직도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안고있는 우리 겨레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핵전쟁으로 인한 《체제통일》의 개꿈을 꾸는 극도의 대결광신자 리명박역적패당이야말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백년숙적이며 총두리째 들어내야 할 악의 근원이다.

하루강이지 범 무서운줄 모르코 불장난에 미쳐날뛰는 리명박패당에게 진저총대맛, 진저전쟁맛을 보여줄 때는 왔다.

만약 미친개들을 때려잡는 우리 식 성정이 리진다면 용약 손에 총을 잡고 서울, 인천으로 달려나가 역적무리들의 씨종자를 쳐엎애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겠다.



결사의 보복의지를 안고 인민군대입대를 열렬히 탄원하는 김주혁중학교 학생들

정의는 악을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모독하고 《표적》으로 삼는 특대형도발사건을 련속 감행한데 이어 공화국 전지역을 《표적》으로 전쟁광기를 부리는 엄청난 군사적도발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지난 2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그 무슨 《도발》에 따른 《핵실험》들을 타격한다는 미명하에 군사기지의 남조선공군과 미공군의 전투기들에 대한 급유와 무장장착 및 활주로진입 혼란이란것을 벌였다.

7일에는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모독한 주범인 국방부 장관 김판진이 서해 연평도의 해병대를 찾아가 《북의 도발시 원점과 지원부대까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 하라고 목에 피대를 둘 구하였다.

남조선호전세력의 군사적도발과 광기어린 망발들은 그들의 무모한 반공화국대결광기, 복침전쟁광기가

국도에 이르렀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그들의 《표적》도발행위는 어제 오늘 시작된것이 아니다.

《비핵, 개방, 3 000》이나 《비상통치계획-부흥》 등이 보여주듯이 리명박을 우두머리로 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은 공화국의 수뇌부와 체제, 주민들을 정치적 《표적》으로 삼고 《흡수통일》책동을 체계적으로 악랄하게 벌려왔다.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포사격도발사건을 계기로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도 응징하겠다.》는 호전세력의 군사적 《표적》 대상은 올해초에 조작된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으로 완성되었다.

지난해 6월에 있는 공화국의 《최고준엄표적사건》사건, 《인공기표적》사건 등 남조선호전세력의 도발행위는 올해에 절정에 이르렀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모독증상하고 《표적》

으로 삼는 저들의 최악의 대가가 어떤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헤뭇비고 있다.

공화국인민들이 백두산위인들의 영상을 왜 심장속에 모시고 사는지, 한그루의 구호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면서도 어저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지 민족성원이기 전에 인간이기를 그만둔 강대무리들은 상상조차 못할것이다.

공화국의 최고준엄, 이는 곧 인민의 생명이고 미래이고 삶의 전부이며 존엄높은 체제이고 제도이며 민족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최고준엄을 또다시 증상모독한 행위는 하늘의 태양을 어찌보겠다는것으로서 하루강아지의 무분별한 망동이기 전에 천추에 용납 못할 악행으로 되는것이다.

사대와 굴종을 장명부지의 수단으로, 대결과 전쟁을 유발할출의 출로로, 어그는자들은 존엄과 자주, 정의와 징벌에 대해 무덤속에서도 깨닫

지 못할것이다.

더욱더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남조선호전세력이 이번의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악적인 망동을 《군내부문제》로 한정짓고 동족의 분노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느니, 《대응할 가치가 없다.》느니 하고 꺼리낌없이 체치고있는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공화국 전지역을 《표적》으로 삼고 외세와의 야합밑에 복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회세의 불망나니, 무도한 정치쟁쟁대인 남조선의 대결광신자, 전쟁미치광이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기 위해 복수의 총창을 벌리고있다.

이 정의의 총창은 민족의 이름으로, 인류의 망심을 대신하여 대결과 전쟁을 위해 불꽃을 모르고 날뛰는 자들을 세상끝까지 따라가서라도 징벌할것이다.

김정혁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감히 모독한 남조선보수패당의 특대형도발사건은 천만국민의 가슴을 친배배의 복수심으로 옮겨 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이번 히스테리적광기는 결코 남조선의 일개 군부대의 개별적죄행들의 머리속에서 고안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공화국대결광기가 풀수에 들어찬 리명박역도와 국악무도한 불한당들인 국방부 장관 김판진, 합동참모본부의 장 정승조와 같은 대결미치광이들이 조작한 천인공노할 도발적망동이다.

이미 지난해 남조선북해공군부대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공기표적》사건, 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썬불이거나 내다건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헐뜯는 《구호 또는 현수막》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서 벌어진 《최고준엄표적사건》 행위 등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들을 저지른 주범도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이다.

동족대결광기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자들은 북에 선불질을 하였다가 되게 얻어맞고는 《천추의 한》이니, 《울화통이 터진다.》느니 하는 광기를 부리다 못해 감히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이 대결미치광이들은 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하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는 동족에게 총리부를 내대는 국악무도한 대역죄를 저지른 천하에 둘도 없는 패물패덕한이며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민족의 원수이다.

오늘 북남관계가 완전히 파탄되고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된것은 바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복침전쟁책동에 미쳐난 리명박역도와 그에 추종하는 무지막지한 강대집단, 외세의 전쟁사화관들때문이다. 다치면 터질듯 한 전쟁전

남을 자격마저 상실한 천하역적의 무리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에 아부하는 더러운 역적패당, 무모한 호전광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대해 꿈조차 꿀수 없으며 우리 겨레가 전쟁의 참화밖에 입울것이 없다.

지난 북남관계가 아무리 복잡다단했어도 리명박역적패당에 의하여 지금과 같이 국도의 대결상대가 조장되고 전쟁위험이 도래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특대형도발자들에 대한 지수는 분노와 복수심을 안고 리명박역적패당을 단호히 징벌하리라.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모독한 천하의 대역죄를 단죄한다

리동제 재일조선인민화통일협회 회장이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증상모독한 리명박역적패당의 특대형도발행위를 규탄하여 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최근 리명박역적패당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전야의 정세를 조성해놓은것도 모자라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모독하는 천하의 대역죄를 저지른것을 규탄하였다.

집권 4년동안에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조선반도정세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로 몰아넣은 리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하여 일련된 남녘동포들, 6.15통일시대를 되찾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온 겨레가 민족적의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담

화는 지적하였다. 담하는 민족의 아픈 가슴에 거들 칼질을 해낸 리명박 《정권》의 특대형도발행위를 강력히 단죄한다고 밝혔다.

리명박 《정권》이 집권이래 지금까지 저질러온 죄행으로 심판받을 날은 멀지 않았다고 담하는 주장하였다.

담화는 남조선당국과 군부호전세력이 전쟁도발책동에 행해지고 누더기처럼 찢어진 호전세력이 전쟁도발책동에 행해지고 누더기처럼 찢어진 최첨단대결장비로 맞섰다고 한 공화국의 폭탄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리명박 《정권》은 저들이 저지른 죄행에 대하여 온 겨레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담하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리명박역도의 퇴진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단평 다시 생긴 《한나라당》

얼마전 남조선의 《령남신당 자유평화당》이 자기 당의 명칭을 《한나라당》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탈바꿈한지 얼마 안되어 《한나라당》이 다시 생겨나는 희극이 남조선정치무대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바빠난것은 《새누리당》이다. 오는 《총선》에서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다른 당에 투표할것이 우려되었기때문이다.

더우기 새 《한나라당》의 대다수 성원들은 이전 《한나라당》 출신으로서 명남당에 대한 영향력이 《새누리당》에 비해 결코 못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적지 않은 표가 《새누리당》이 아닌

라 다른 당인 새 《한나라당》으로 흘러가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새누리당》으로서의 악몽이 아닐수 없다.

울상어 된 《새누리당》은 지금 《잘못된 발상》이니, 《당명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이니 뉘니 하며 복잡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새 《한나라당》은 《버릴 때는 언젠데...》 하며 코웃음만 치고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개칭한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립장을 밝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새누리당》과 새로 나타난 《한나라당》이 나란히 등록되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앞으로 《선거》판이 어떻게 될지 자못 흥미있는 대목이다.

당명을 바꾸어 민심을 끌어당기려다가 오히려 안락것보다 못하게 된 《새누리당》의 신세, 이런것을 두고 흑 때려다 흑 불인격이라고 하는것이다.

김철호

최근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이미전부터 제창해온 그 무슨 《통일세》 도입을 법제화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얼마전 유럽지역을 행각한 통일부 장관 류우익은 도이쉴란드의 교포들과 가진 간담회라는데서 그 무슨 《통일항아리》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였다. 그뿐 아니라 유럽동맹관계자들과의 회담이라는데서도 저들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있다.》느니 뉘니 하면서 《통일항아리》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말하자면 해외여론의 지지를 얻어서라도 거이 《통일세》를 도입하여 리명박보수 《정권》의 《치적》을 쌓고 앞으로의 《추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는것이다.

남조선 각계는 물론 《국회》에서까지 론할 가치도 없는것으로 평가되어 버려진 《통일항아리》를 해외에까지 들고다니는것은 수치고 모르고 민족적정량도 없는 류우익과 같은 반통일분자만이 할수 있는 범퍼행위이다. 또 그것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저들의 허황한 《대북정책》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는 필사의 몸부림이다.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심히 증상모독한 리명박역적무리들에 대한 민족의 분노는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등장한 《항아리》라령은 리명박역도가 이미전부터 제창해온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야망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족의 수취 《항아리》라령

남조선보수패거리들이 벌리고있는 《통일항아리》 놀음이란것은 리명박이 2009년 《광복절경축사》라는데서 《3단계 통일방안》과 함께 제창한 《통일세》라는것을 법제화하기 위해 2011년 11월에 신설하기로 한 《통일정책》의 이름이다. 이것은 명백히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금명사태》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이른바 《통일항아리》라는것을 통하여 인민들의 혈세를

빨아내고 반공화국대결을 더한층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부터 출발한것이다.

지난 2월 6일 남조선 《국회》에서 보수패당의 《통일정책실시》문제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인것으로 하여 부결된 사실은 《항아리》라령의 부당성을 실증해주고있다.

리명박과 통일부패거리들이 퍼하는 《통일항아리》도입시도는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도발행위, 체제대결선언으로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특대형반공화국도발행위들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짓밟아버릴 겨레의 단호한 지의앞에 언제 명멸이 끊길지 알수 없는 처지에 놓인 리명박보수패당이 제 주제를 그 무슨 《항아리》라령을 운운하고있으니 소가웃다 꾸메미 터질 노릇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을 등지고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으며 리명박적무리들에게 반드시 준엄한 철추를 안기코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무엇을 노린 《최고위과정》 개설인가

최근 남조선의 통일부가 교외공무원들과 기업최고경영자들, 언론사와 학계대표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통일정책최고위과정》이라는것을 시작하였다.

이 《최고위과정》을 놓고 통일부당국자들은 《통일문제와 《대북정책》현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형성》이니, 《통일준비가 본격화되는 계기》니 뉘니 하며 자화자찬하고있다.

《반통일부》, 《분렬부》로 악명떨쳐온 통일부가 새삼스레 《통일문제에 대한 리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인식을 제고》시킨다고 벌려놓은 이 놀음에는 간파할수 없는 불순한 목적이 들어있다.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저들의 이른바 《대북정책》으로 내들고 지난 4년남짓한 기간 남조선보수패당이 광란적으로 벌려온 동족대결과 전쟁정책을 지금 총파산의 위기에 처해있다.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파국상대에

몰아넣은것으로 하여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매격을 받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저들의 반통일정책과 궤변, 책동들을 정당화하고 끝까지 동족과 대결하려는 어리석은 야망밑에 이러한 광대국을 연출하고있는것이다.

지난 2월에 열린 첫 강습에 출연한 류우익이 북이 《력사의 흐름에 뒤처진다면 결국 그 흐름에 끌리코갈것》이라느니, 《북은 굳게 지른 빗장을 풀어야 한다.》느니, 《《통일항아리》 등의 정책을 끝까지 추진해나갈것》이라느니 뉘니 하고 고야대면서 파산된 저들의 반통일정책을 지금 비호두 들고 동족을 헐뜯는 나발을 불어댄것이 이것을 잘 말해준다.

역대적으로 남조선의 통일부는 《통일》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아래 나라의 분열을 추구하면서 공화국을 모독, 미방하고 동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천하에 못된짓만을 골라해왔다. 그 무슨 《대화》요, 《유화》요 하며 너스레를 떨다

못해 겨레의 버림을 받아 휴지장이 된 저들의 《통일정책》을 남조선사회에 강제로 내려먹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일부야말로 반민중, 반통일대결집단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벌려놓은 《통일정책최고위과정》은 지금 남조선사회에서도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은 《리명박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에 무슨 선전할것이 있는지 되묻고있다.》, 《《최고위과정》개설이전에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것을 성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것을 촉구한다.》며 보수당국의 책동을 규탄해나서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리명박 역적 패당을 퇴진시키라.

지난 2월 28일 일본공안당국은 《외환관리법》을 운운하며 도교에 있는 총련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놀음을 벌였다. 이날 아침 수색대의 차량과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하여 총련 조선출판회관을 봉쇄한 일본공안당국은 여기에 자리잡고 있는 제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과협)와 제일본조선인체육인련협회(체련)에 대한 수색놀음을 벌였다. 무려 4시간에 걸쳐 계속된 수색과정에 공안당국은 컴퓨터와 문서 등을 압수하였을뿐 아니라 아무 관련이 없는 회관의 모든 총과 지어 육상까지 수색하였다. 같은 날 공안당국은 제일동도들의 조국방문편의를 도모해 주고있는 총련산하조직인 주가이려행사와 총련 도교도 이다바시지부에 대한 수색도 련쇄적으로 벌였다.

한편 일본당국은 언론들을 내세워 총련의 영상을 흐려놓기 위한 반공화국, 반총련어론도 대대적으로 퍼뜨리었다. 일본공안당국은 도교에 사는 한 동도가 공화국에 컴퓨터 《불법수출》하였다는 혐의를 들고 나오며 그와 관계시켜 이러한 폭거를 감행한것이다.

이른바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이 동포녀성이 조국을 방문할 때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간것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문제시하며 백주에 총련조직에 대한 강제수색놀음을 벌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속통이 좋고 웅졸하기 그지없는 일본당국만이 저지룰수 있는 비렬하기 짝이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결코 여기에 국한된것이 아니다.

그 무슨 《부정수출》을 떠들며 감행한 일본공안당국의 이번 강제수색놀음은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고 총련을 말살하려는 범죄목적에서 출발한 불법무도한 폭거이러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총련은 공화국의 합법적인 해외동포조직이다. 전체 제일동도들의 의사와 리의를 대표하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로서 총련은 결성된 이래 조국과 뜻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해외동도들의 권리와 리의를 위한 활동을 힘차게 벌여왔다. 이를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일본당국들은 이 조직을 말살하기 위한 폭력이 되어 날뛰었다. 이번 폭거도 그런

장소에서 감행된것이다. 그러나 이번 폭압소동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일본당국에 의해 지금까지 총련을 말살하기 위한 수많은 모략사건들이 조작되었지만 이번처럼 유치하고 비렬한 사건은 일찍이 없었다. 사건현장을 지켜본 동포들이 《일본당국의 부당한 강제수색이 감행되어 조선출판회관이 봉쇄된것은 이번이 세번째가 되지만 이전에 비해 훨씬 방법이 비렬해졌다.》고 단죄규탄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당국이 컴퓨터 1대를 갖고 《불법수출》을 떠들며 총련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색놀음을 벌린것은 공화국을 모독하고 총련을 말살하기 위한 일본당국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범죄행동이 이미 도수를 넘어서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당국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은 미국과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있다는데 그 엄중성이 있다. 지금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있다. 이것이 언제 전쟁으로 번져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바로 이러한 때에 벌어지고있는 일본당국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은 남조선보수집권세력과 미국이 벌리는 반공화국침략전쟁소동에 적극 가담하여 제침의 길을 열어보자는 음흉한 속심의 발로이다.

공화국의 대국상을 기화로 삼아 허황하기 그지없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일본당국의 무분별한 소동은 실로 우리 민족의 분노를 자아낼 일이 아닐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족은 지난 40여년간 조선을 강점하고 천인공노할 대죄악을 저지른 일본과 결산할것이다.

지난 기간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교훈만한 사죄와 배상도 없이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미쳐달라는 백년속적 일본의 파렴치한 범죄책동의 대가를 우리 민족은 천백배로 받아내야만할것이다.

김영철

북침전쟁연습의 중지를 요구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진보연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미국과 남조선호전정권의 침략전쟁연습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침을 노린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발발적으로 벌여놓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각전계획 5027》 등 전쟁계획에 따른 이 군사연습은 북과의 체제대결을 위한것으로서 명백히 북침연습이라고 그들은 단식하였다. 그들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리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굴욕협정폐기를 요구하여 단식농성

남조선의 《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청년연대, 진보연대를 비롯한 각계 단체성원들이 미국과의 굴욕협정의 폐기를 요구하여 1일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들은 농성에 앞서 서울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리익만을 위한것

이며 한중도 못되는 재벌들의 배를 불리워주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목숨을 건 단식농성투쟁으로 15일로 예정된 망국협정의 발효를 막아낼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리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반값등록금실현투쟁에 나설것을 결의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21세기 한국대학생련합》과 민주통합당, 통합노동당의 학생위원회를 비롯한 대학생, 청년단체들이 4일 《반값등록금국회만들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단체들은 결성선언문에서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30일 서울에서 반값등록금실현을 결의하는 대학학생들의 대규모투쟁을 가질것이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생존권보장을 위한 사회개혁을 주장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2월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사회의 근본적개혁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절대다수 근로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개혁을 실시할때 대한 요구안을 정치권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철폐, 정규직로

동자들의 권리보장, 임금인상, 정리해고금지 및 고용안정, 로조관급지 등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단체는 현 《정권》이 로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거역할 경우 총력투쟁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반값등록금실현투쟁에 나설것을 결의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21세기 한국대학생련합》과 민주통합당, 통합노동당의 학생위원회를 비롯한 대학생, 청년단체들이 4일 《반값등록금국회만들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단체들은 결성선언문에서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30일 서울에서 반값등록금실현을 결의하는 대학학생들의 대규모투쟁을 가질것이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이러한 한중도 못되는 재벌들의 배를 불리워주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목숨을 건 단식농성투쟁으로 15일로 예정된 망국협정의 발효를 막아낼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리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반드시 심판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공천》을 둘러싸고 분렬되는 반역당

남조선의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심각한 와해위기에 처해있다. 이미전부터 존재해오던 내부갈등과 압록이 리재오의 《국회의원후보공천》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커지고 있는것이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2월 27일 《새누리당》의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는 1차 《공천자》명단을 작성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명단에 친리계의 핵심인물인 리재오가 들어간것으로 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침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제의결요구를 무시하고 본래의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여기에 박근혜가 적극 공조해나섬으로써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가 정면충돌하였다. 비상대책위원인 김종인은 이를 용납할수 없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다른 위원인 리상돈도 《정책쇄신》을 한 상태에서 이번 《국회》에 이를 실현할수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하는데 이번 《공천》명단을 보면 박근혜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더 강하게 비난해나섰다. 여기에 다른 비상대책위원들도 합세할 움직임이 보이면서 《새누리당》은 심각한 혼란상태에 이르렀다.

친박계에서도 《차라리 비내추기기에 리명박 《정부》 장관급 출신은 무조건 《공천》이 안된다는 식으로 기준을 정했어야 하는데 현 《정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채 《공천》로 명목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리재오의 《공천》과 관련해 《박근혜의 의중이 실렸을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또 색갈놀음이냐》

해 떠드는 《정부》와 보수정당, 보수단체와 언론들이 북의 동포들을 같이 공생할 민족이요 형제로 생각해본적이 있느냐는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인도적지원》 (피추기) 라며 하여 쌍시지를 켜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며 막아선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기금유증을 문제삼아 《대북특경》의 울가미를 던진 사람들은 또 누구였으며 《5.24조치》를 통해 식량이나 의약품 등 인도적지원조차 허용하지 않은 《정권》은 어떤 《정부》였는가?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민족이 함께 잘살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길이 아닌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하며, 우리 민

족모두를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킨 《정권》은 또 누구였는지 곰곰히 따져볼 일이다. 그뿐아니라. 김경익국방위원장 서거당시 인간으로 갖추어야 할 초보적도리인 조문마저 막아나서며 국상을 당한 동포를 향해 벼락을 날리는 등의 불손함을 저지른 사람들이 갑자기 마치 인권의 사도인양 자처하며 눈물짓는 모습을 어떻게 진정성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기에야는 식언치 않고, 진정성도 없어보인다. 뭔가 거대한 손이 움직이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한다던 리명박 《정부》는 기자를 벼락한 좌파의 눈을 가졌다고 몰아붙이지 못른다.

그러나 이 애매한 인권의 문제를 기자가 제기하는것은 진정성있는 인권문제차원이 아닐수 있다는 판단때 이번 《탈북자》 송환에 대

태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다른 위원인 리상돈도 《정책쇄신》을 한 상태에서 이번 《국회》에 이를 실현할수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하는데 이번 《공천》명단을 보면 박근혜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더 강하게 비난해나섰다. 여기에 다른 비상대책위원들도 합세할 움직임이 보이면서 《새누리당》은 심각한 혼란상태에 이르렀다. 친박계에서도 《차라리 비내추기기에 리명박 《정부》 장관급 출신은 무조건 《공천》이 안된다는 식으로 기준을 정했어야 하는데 현 《정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채 《공천》로 명목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리재오의 《공천》과 관련해 《박근혜의 의중이 실렸을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한마디로 박근혜가 《정책쇄신》의 미명하에 현 《정부》와 외형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친리계의 좌장인 리재오를 《공천》시킴으로써 친리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다음기 《대통령선거》에서 그들을 썩먹겠다는것이다. 하지만 분석자들은 박근혜와 《쇄신》을 상징해온 김종인 등 비상대책위원들과의 결별이 현실화될 경우 《외부인사를 영입해 당 《쇄신》 이미지에 리용만 하다가 버리》는 정치도의적문제 제기되고 그것은 그의 《지도력》에 손상을 주어 《대통령선거》에 영향이 미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출범한지 두달만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위기에 처해있으며 반역당의 붕괴를 시사하고있다.

리재오가 이번 《공천》에서 당선되었다고 친리명박파가 결코 마음을 놓고있는것은 아니다. 그들은 1차 《공천》심사에서 리재오가 우여곡절끝에서 우 당선된것을 두고 《이번 《공천》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겠다.》며 오히려 불안감을 나타내고있다. 더욱

기 친리계 인물들속에서는 좌장이라고 하는 리재오가 자기들의 의견을 대변해주지 않는데 대해 《혼자만 살겠다는것이냐》며 그를 공격해나섰다. 그러면서 《당이 리재오, 정두언 등만 살려줘 포용의 모양새만 갖추고 나머지 친리 초, 재선의원들은 죽이려는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러한 속에 《공천위원회》가 친리계가 출마한 지역구를 《전략공천지》로 선포하여 친리명박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가 《전략공천지》지역을 신통히도 친리계의 출마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것이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요한 지역인 서울을 중추로 친박계 중진인 홍사덕의원을 《전략공천지》하러는 소문이 돌면서 친리명박파가 들고일어났다. 이 미이곳에 출마를 신청한 리동관 전 《대통령》 후보수석비서관은 《불공정선거이

하는 《한국》 불만이 왜 《한국》을 떠나 일한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그들의 인권부터 논하는것이 순서가 아닐까? 또한 민중들이 진정한정상이나 수용소 등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감행하는 엄청난 만행과 잔학상이 보도될 때 송고한 인권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는가? 확인되지 않은 북에 대한 소문이 가공된 이야기로 사실화하고, 북을 사람 못살 곳으로 오도하며 정치적반사 리의를 행기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세상은 열려져있으며 《정권》 담판이상이므로 국민들은 더많은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있다. 그래서 소위 《왕제산사건》 등을 공안당국이 공중파방송과 보수언론을 동원해 홍보해봐도 국민들은 그를 믿기보다는 또 색갈놀음이냐며 비웃음을 치는것이다.

《총선》에서 몇표 더 얻기 위해 《북인권》을 거론하며 북당소동을 퍼우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공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결렬임이 된다는것을 명심할것이다. 그런 시간과 비용이 있다면 난방비가 없어 추위에 떨고있는 나 홀로 어르신들이나 쪽방촌 사람들의 북지와 인권을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어느 사회의 여성들이 행복한가

1910년 단마르크의 피렌하 본에서 17개 나라 여성대표 약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자 여성대회에서는 1909년 독점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남녀평등권과 자유를 요구하여 파업과 시위를 벌인 미국 시카고의 여성노동자들에게 굳은 연대를 표시하고 그들이 투쟁에 일떠선 날인 3월 8일을 매해 전세계 근로여성들의 명절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로부터 어언 온근한 세기하고도 2년이 지났다. 이 기간 세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해왔던가. 102년의 년륜을 새긴 여성해방투쟁의 력사는 그 갈피마다 후세에 전할 수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21세기가 펼쳐진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정치적 무관리와 불평등속에서 고통을 겪고있으며 여성해방문제는 의연히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하다면 오늘날 조선여성들의 자유와 평등, 권리는 과연 어떻게 실현되고있는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

이는 일찌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지

위와 역할을 가리켜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명구이다.

이 통속적인 명구와 더불어 공화국의 여성들은 사회와 자기 운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나섰다.

1946년 첫 민주선거에서 인민위원으로 선거된 여성들의 수는 전체 인민위원 수의 13.1%, 1946년 단 몇달 사이에만도 수십만명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새 조국건설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공화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어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고 일군으로, 영웅으로 성장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

이는 1995년 3월 8일에 발표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작이다.

은 나라 인민이 피눈물의 해를 보낸지 얼마 안되어 발표된 이 로작은 여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는 여성들을 높이 내세우시며 여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더욱 힘있게 떠맡어나가도록 고무해주시

고 온갖 사랑을 다 베푸시었다.

공화국여성들이 《친정집》이라 정답아 부르는 평양산원에 돌려진 사랑만 높고보자.

— 연 673만여명의 여성들이 140여t의 산물과 보약재를 받으며 의료상혜택 받음.

— 2010년 9월부터 부유한 계층의 여성들이나 받을 수 있는 경각의마취에 의한 무통해산법으로 아무런 고통없이 해산.

— 71만여명의 아기와 400여쌍의 다태자들 출생.

차마 돈으로는 계산할수 없는 이 사실앞에서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있다.

《공화국의 여성들이야말로 세상에 행복한 여성들이다.》

같은 조선녀성이라고 하여 다 이런 행복을 누리려는것은 아니다.

이는 아래의 자료를 보면 잘 알수 있을것이다.

— 남조선녀성들의 평균해산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

—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여성들의 일자리가 55만여개나 줄어들었으며 2009년 5월에 줄어든 일자리 21만 9 000개중 여성들의 일자리는 21만 1 000여개.

— 남조선의 언론들도 녀성들의 《해산포기》현상은

《이남사회의 곳곳에 뿌려 내린 녀성차별구조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폭로.

— 2008년 녀성들에 대한 살인사건은 2005년에 비해 3.2%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강도행위와 아니라 상습적인 강간폭행.

— 전라남도 보성으로 려행한 처녀들을 배에 태우고 강간하려다가 실페하자 모두 바다에 빠져죽은 사건, 대학생 2명을 유괴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 7명의 녀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한 《강호순련쇄살인사건》 등 최근년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

—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나선 연약한 처녀들이 경찰의 군화발에 마구 짓밟히고 경찰서에 끌려간 녀성시위자들이 속옷까지 벗기우는 치욕을 당한 사실,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참가한 어머니들까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범죄자로 탄압당한 사실, 경찰이라는자들이 등록금문제를 해결을 위해 투쟁에 나선 녀학생들의 목을 찢고자 못해 그들의 옷을 찢고 성적인 모욕을 가하는 망동을 서슴없이 저지른 사실.

이것은 오늘날 남조선녀성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등》의 실체를 보여주는

몇가지 사실자료들이다.

남조선녀성들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서민생활향상》은 물론 녀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리명박의 유혹에 넘어가 《지지표》를 던졌었다.

하지만 그 《지지표》가 가져다준 현실이 이렇듯 맹목할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마찌지너》를 고르는 방법을 소개하며 녀자고르는데도 《인생의 지혜》라는 말을 내뱉은 사실 등은 남조선에서 녀성들이 왜 갈수록 깊은 고통의 심연속에 빠져들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으로 된다.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보호를 받고 사랑속에 떠돌아야 할 녀성들이 단지 녀자로 태어났다는 하나의 이유로 극심한 차별과 천대속에 모진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으니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은 과연 누구이고 의지할 곳은 또 어디인가.

《만민복지》와 《녀성평등》의 화려한 간판에 어두운 삶을 살고있는 남녘의 녀성들과 남고니 똑같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있는 공화국의 녀성들.

과연 어느 사회의 녀성들이 행복한것인가.

손승욱

공화국 각지 사찰들에서 《열반절기념 조국통일기원법회》 진행

7일 오전 10시 공화국 각지 사찰들에서는 《열반절기념 조국통일기원법회》가 일제히 봉행되었다.

법회들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 시, 군 위원회 교직자들, 해당 사찰의 승려,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법회들에서는 열반절례식이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조국통일기원발원문이 봉독되었다.

연설들과 발원문에서는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때에 열반절을 기념하고있다고 하면서 해의의 전체 불교도들은 《은 거레가 새로운 신신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6. 15통일시대의 요구대로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립장을 견지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북침전쟁도발책 등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

세가 최악의 전쟁국면에 처하였다고 하면서 내외호전관들의 전쟁책동을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실천행에 적극 나섰다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설들과 발원문에서는 또한 전체 불교도들이 화해와 화합, 평화와 평등에 관한 불법의 가르침을 받들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 민족의 부흥과 번영을 위한 헌신참여에 용맹정진할데 대하여 발원하고 삼천리조국강토에 발고여락의 리념이 실현된 현세의 이상정도가 하루빨리 이룩될것을 기원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자랑 조선우표

주제35(1946)년 3월 12일 해방후 새 조선의 첫 우표인 《삼선새》이 발행되었다.

그때로부터 66년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우표는 5 700여종 발행이라는 기록을 수놓아왔다.

최근에만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광명절을 맞으며 기념우표(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 개별우표 1종)들이 창작되었다.

공화국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과학,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를 반영한 조선우표는 겨레에게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었고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높이 떨치고있다.

중국 제10차 외국최우수우표선발경연에서만도 조선우표(동물)가 최우수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2011항저우세계휴한박람회에서 조선우표의 전시와 보급이 활발히 진행된 조선관이 최우수전시상과 상장을 비롯하여 여러 상과 상장을 수여받았다.

박람회기간 조선관에 전시된 백두산위인들의 영상주제의 우표와 조종진주제제의 우표선전물, 특색있게 발행한 박람회기념우표를 기본으로 하는 우표첩들이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과 우표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오늘날 조선우표가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는데는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평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새 조선의 첫 우표를 몸소 모자주시고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조선우표를 가지고 서신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면서 우표는 우리 나라를 세상에 소개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아직은 세상사람들이 조

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표를 통해서 조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고 조선인민이 얼마나 근면하고 강한 인민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첫 우표를 만든 경험에 기초하여 도안도 더 잘 그리고 인쇄기술도 높여 해방된 조선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는 여러가지 우표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발전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때부터 조선우표는 진정한 인민의 우표로서 민족의 자랑찬 력사를 전하며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조국해방 1돐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조선우표가 발행되었고 련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기념우표 《광명성1》호발사 기념우표를 비롯한 16종의 우표가 발행되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서울해방기념우표를 비롯하여 27종의 우표가 발행되었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자체의 힘으로 만든 《천리마》호트랙

포로와 볼도젤을 반영한 우표들을 비롯하여 공화국인민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담은 우표들이 수없이 발행되었다.

또한 세계적범위에서 주목되는 사실과 다양한 주제담은 우표들도 많이 발행되었다.

1994년 10월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려는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제목으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신 기념전지가 발행되었으며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여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주체년호, 태양절제정기념우표들이 나왔다. 그처럼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발사 기념우표를 비롯한 기념전지 사면들을 담은 우표들도 발행되었다.

오늘도 조선우표는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속담이야기

저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다

리조말 고희재 령의정을 지낸 한 대감이 퇴물을 몹시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각 곳에서 섬겨바치는 물건이 날마다 그의 집 마당을 채우곤 하였다. 대감은 이것들을 단 하나도 쓰지 않고 몇십간의 큰 창고들에 차곡차곡 넣어두고 문을 꽁꽁 닫아뒀다. 그리고는 날마다 창고들을 돌아

보며 호호한 기분에 잠겨군했다.

그런데 창고에 채워넣은 많은 퇴물들중에는 짐승이나 물고기와 같은 음식감들도 들어있어 날이 갈수록 썩어 썩어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여기에 손을 댈음을 못하였다. 썩어나는 물을 버리자고 했다가는 어떤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

기때문이었다. 썩은내가 하도 코를 찢리 창고지나 하인들조차 그걸에 얼선하지 않았다.

이런데로부터 저 싫다고 남도 안주는 욕심많은 비물어진 마음이나 심보를 가리켜 《저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다.》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본사기자

유모아

관찰사가 되고싶어서

어떤 량반이 서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입속으로 외우며 다녔다.

하루는 그와 친하게 지내는 한 고을원이 그가 자는 방의 창문앞에 와서 관찰사의 이름을 휘임없이 외워대고있었다.

그 소리에 깨어난 관찰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내 이름을 외우고있는것이냐?》

그러자 고을원이 이렇게 말하였다.

《사또께서는 부처님이 되여불가 해서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것이 아닙니까? 나는 령감처럼 관찰사가 되여불가 하고 령감의 이름을 외우는것입니다.》



↑ 녀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녀성들
← 참다운 로동의 권리를 누려가는 공화국의 녀성들



속담이야기

저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다

리조말 고희재 령의정을 지낸 한 대감이 퇴물을 몹시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각 곳에서 섬겨바치는 물건이 날마다 그의 집 마당을 채우곤 하였다. 대감은 이것들을 단 하나도 쓰지 않고 몇십간의 큰 창고들에 차곡차곡 넣어두고 문을 꽁꽁 닫아뒀다. 그리고는 날마다 창고들을 돌아

보며 호호한 기분에 잠겨군했다.

그런데 창고에 채워넣은 많은 퇴물들중에는 짐승이나 물고기와 같은 음식감들도 들어있어 날이 갈수록 썩어 썩어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여기에 손을 댈음을 못하였다. 썩어나는 물을 버리자고 했다가는 어떤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

기때문이었다. 썩은내가 하도 코를 찢리 창고지나 하인들조차 그걸에 얼선하지 않았다.

이런데로부터 저 싫다고 남도 안주는 욕심많은 비물어진 마음이나 심보를 가리켜 《저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다.》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본사기자

유모아

관찰사가 되고싶어서

어떤 량반이 서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입속으로 외우며 다녔다.

하루는 그와 친하게 지내는 한 고을원이 그가 자는 방의 창문앞에 와서 관찰사의 이름을 휘임없이 외워대고있었다.

그 소리에 깨어난 관찰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내 이름을 외우고있는것이냐?》

그러자 고을원이 이렇게 말하였다.

《사또께서는 부처님이 되여불가 해서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것이 아닙니까? 나는 령감처럼 관찰사가 되여불가 하고 령감의 이름을 외우는것입니다.》

단편소설

약 (13)

글 배경휘, 그림 김윤일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은숙은 없고 편지만이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영옥이 아버지, 당신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세요요.》

영옥이 아버지가 저를 생각해주시는 그 마음은 알고도 난지만 전... 떠나지 않을수 없어요. 얼마전에도 7. 4남남공동성명이 나오고 은 나라가 통일열기로 들끓는데 그 약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치료만 받으며 집에 앉아있자니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오지 않아요. 당신결에 마음 편히 앉아있지 못하는 제 심정을 리해해주세요요.

언제나 저를 위해 묵묵히 자기를 바쳐오신 당신에게 기쁨을 드릴 대신 피로움만 드리는 자기 자신이 한스러워요. 하지만 우리도 함께 기뻐할 때가 있었지요.

영옥이 아버지, 절 리해해주세요요. 너무 제 마음대로만 한다고 나무람만 마시고...》

그때의 심정을 은숙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끝내 떠나왔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영옥이 아버지가 뒤에서 노여운 눈길로 지켜보는것만 같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를 아껴주는 영옥이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지 않으면서 벗어나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내가 없는 빈방에 들어와 쓸쓸해하실 영옥이 아버지와 영옥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다. 하지만 이 약을 만들어내고 통일의 날 영옥이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갈 그날을 그리며 이를 악물고 집에서 나왔다. ...》

영옥이 아버지, 저를 용서해주세요요. 당신의 그 진정에 보답할 때가 올거예요. ...》

실로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가.

나는 은숙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으로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것이 아니라 제동기가 되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만 실어주었다. ...

때늦게나마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그를 괴롭힌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회화

그처럼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사심없이 강고리 바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통일을 바란다고 하랴.

진정 그렇게 간절한 소원 - 피라는 통일의 갈망이 은숙을 그렇듯 강한 녀자로 만든게 아닐까. 그 갈망이 없었다면 아무리 아까운 녀자였다고 해도 연기를 끝까지 해낼수 없었을것이다.

은숙은 약의 완성단계에서 인체실험을 자기 몸에 하였고 그다음엔 딸에게 하였다. 몇번 실패해도 그런 실험의 후과로 그대 더 오래 살지 못할것 같다.

하지만 그는 한생을 바쳐 끝내 고향사람들에게 줄 약, 아들에게 줄 약을 만들어냈다. 약은 만들어졌으나 그 약을 치료에 도입하지는 못하였다. 그 약이 실지로 치료에 쓰일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그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순간에 그가 나의 손을 잡고 안락까지 하던 말을 나는 잊을수 없다.

《통일되면... 우리 고향에... 영수를 찾아주세요요. ...그리고... 약... 약물...》

X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가슴을 허비는 피로움과 흥분을 누르려는듯 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고 침

묵을 지키다가 뜨뜨뜨 입을 열었다.

《6. 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우리 장군님께서 밝혀주시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북남교류가 활발해지고 남조선에서 그 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 정말 통일이 된것만 같구나. 너의 어머니가 오늘을 봤으면...》

정말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싶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헌데 그 회사에서 약에

에 마쳐왔다.

그 약은... 그제 하나의 발명품이라고 할수 없었다.

물론 어느 발명품이나 다 과학자의 고심참담한 행로가 깃들어있어이지만 이것은, 이것은 어머니의 생명과 우리 가정의 력사가 깃든 것이었다. 통일을 갈구하는 우리 어머니의 님이 깃들었다고 할수 있는, 그 어떤 재부라도 바랄수 없는 우리 가정의 가보였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는것은 꿈에도 생각

나는 머리를 저었다.

《아버지, 그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벽시계의 초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며 무엇인가 재촉하는듯 하였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나도 너와 같은 심정이지만...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것 같으냐?》

어머니라면... 나는 대답할수 없었다. 그 약을 위해 생명까지 바친 어머니, 어머니는 그 어떤 명에나 자신을 위해 그 약을 만든것이 아니었다. ...

옷방에서 딸애가 록음을 틀어놓았는지 부드러운 녀성중음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

통일 통일 통일이 어서 오라마

갈라진 아픔 더 못 참아 온 겨레 웨치는 통일

...

아버지도 나도 남편도 모두가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그 노래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피라는 웨침처럼 들렸다.

X

나는 아버지의 바래움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나에게 해당 일군을 만나라고 하였다. 내가 방속에는 어머니의 한생이 깃든 푸른색 투쟁의 자료철이 있다. 약에 대한 연구자료들이었다.

그것을 넘겨주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남는것이 없다. 어머니의 님과 우리 온 가정의 희망과 쓰라림과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있다. 그것을 오늘 넘겨주려고 간다. 어머니가 그것을 바랐을것기에...

그것이 통일로 가는 한 걸음이기... 절로 눈물이 앞을 가리워 나는 손수건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약을 가져가요. 어머니가 그리워하시던 오빠에게 드리기 위해 제가 가지고 가요.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

통일 통일 통일이 어서 오라마

불러서 웨쳐서 울거나 일어나 싸워서 통일

...

그것은 내 심장에서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오빠를 향해 달려가는 어머니의 노래소리였다.

(끝)